



당신은 컬러로 꿈을 꾸는가? 디지털 컬러 인쇄는 그 시대의 완벽한 기술

인쇄기 제조업자들이 인쇄 속도가 5ppm, 8ppm, 심지어 12ppm으로 작동하는 컬러복사기를 소개하였을 때가 아주 오래전인 것 같다. 물론, 당시에는 cpm(분당 매수)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원본이 될 모든 인쇄의 개념이 R&D(연구개발) 부서 어딘가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판매 권유 방식은 “억눌려 있던 컬러에 대한 요구”를 내세워 광고하는 것이었다. 만약 인쇄기가 오프셋의 제한 없이 풀 컬러 출력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 고객들은 수표 장부를 펼쳐두고 문 밖에서 줄지어 기다렸을 것이다.

초기 컬러복사기의 경우, 종이 옵션이 제한적이었고, 이미지 품질이 흡족할 정도였고, 출력물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말로 이해한 인쇄업자는 거의 없었다. 억눌려 있던 컬러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너무 과대선전된 컬러 혁명은 방음장치의 진화에 그치고 말았다. 대부분의 기술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이야기가 진기해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곤 했던

것처럼, 지금은 모든 디지털 컬러장치가 연결이 된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인쇄회사조차도 디지털 컬러 인쇄가 그 회사의 주요상품이다. 또한,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매우 고급으로 여겨졌던 몇몇 특징들이 지금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다. 가변 데이터 인쇄(VDP), 수많은 인라인 마감 옵션, 심지어 종이 컬러방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모델을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문제

나중에는 기술의 관점으로 돌아갈 것이

디지털 컬러 인쇄

다. 먼저 조사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컬러 인쇄가 훨씬 더 적은 것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되는 산업을 위해 চাল나를 적용시킨 것 같다는 명제이다.

인쇄 산업 경제학자들은 현재 경기침체가 회복되고 있는 징후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회복이 많은 소규모 인쇄업자들에게 안정세로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다. 한 속담 중에 “희망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잔디 위에서 옆으로 재주넘기를 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환호할 정도로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인쇄업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허리띠를 졸라맴으로써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였다.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을 남기고 직원을 감원하는 것이었다. 신속한 인쇄 회사들은 호황기에도 매우 적은 인원의 직원들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이 울트라 린(ultra-lean)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출력장치는 여러 장점들을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디지털 생산이 오프셋보다 훨씬 덜 노동 집약적이고 정확한 기술을 더 적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풀 컬러 출력을 할 때, 인건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할 때, 오프셋 프레스 조작자보다 디지털 조작자를 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작업이 이미 오프셋에서 디지털로 옮겨졌다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때 신문사로 보내졌던 대부분의 흑백 및 부분 컬러도 몇 년 전에 디지털로 이동했다. 현재 풀 컬러 작업에서는 디지털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컬러가 인건비 삭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노동 집약적인 제책사이다. 지금 인라인 마감 옵션은 간단한 스티칭부터 제책까지 모든 것을 커버한다. 인쇄업자들이 사용 중인 장비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마감 옵션에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만약 자주 이용되는 한두가지 마감 기능이 작업흐름을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다면,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진보하는 디지털 기술

요즘에는 컬러 디지털 출력장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든 있다. 매월 많은 양의 출력물, 오프셋 이미지에 가까운 품질, 초정밀 해상도, 매우 확장된 재고처리능력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모델들이 있다. 재고(비품)에 대해 말하자면, 디지털 컬러 작업에 필요한 종이의 다양성이 지난 10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말로 이용가능한 수천가지의 컬러, 질감, 마감재, 무게, 크기, 및 환경 증명서 등이 있다.

환경 문제는 디지털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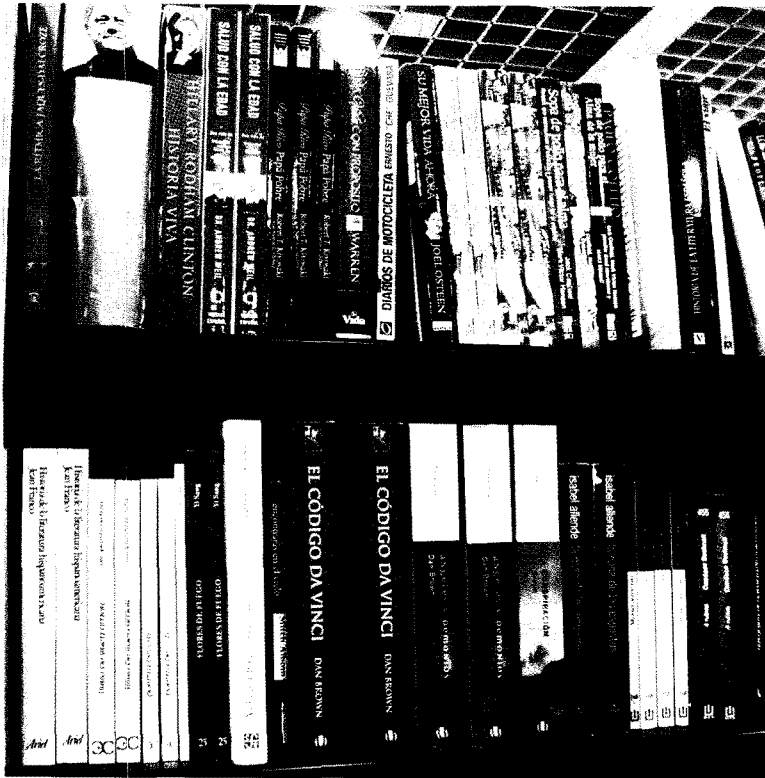
또는 인쇄 공정에 화학물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부터 시작해보자.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지금 친환경적인 토너를 사용하고 있다. 이 종류의 장비는 오존과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를 생산하기 때문에, 통풍이 우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지침서를 따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장 최근의 디지털 컬러 장치들은 제품 공급의 차별화에 상당한 잠재성을 제공하는 특징들을 선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 고급 모델에 클리어 토너를 도입한 일일 것이다. 이는 인쇄업자들이 오프셋 작업에서 광택제를 바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부분 적용은 이미지를 그 페이지에서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 수 있어서, 특히 마케팅 자료에 매우 적합하다. 다른 특징 및 옵션들은 보다 저렴한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

1:1 마케팅

마케팅 서비스 제공자(MSP)가 되어가고 있는 인쇄업자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면, 가변 데이터 능력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리고 컬러 디지털은 모든 1:1 마케팅 선전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거의 모든 디지털 출력장치는 가변 데이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정말로 배우는 것)이 묘책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일을 하게 될 직원을 위해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직원들이 당신과 당신의 판매팀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품으로 고

디지털 컬러 인쇄



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능력을 마케팅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주문이 밀려들어오기 전에 팀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고객과 잠재고객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컬러의 장점은 많고 단점은 적다. 이는 당신의 고객에게 풀 컬러 생산의 빠른 회전과 고품질만이 요구되는 인쇄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가변 데이터가 도달하기 쉬운 범위 안에 있다. 디지털 컬러를 통해 매일 매일 진정으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인쇄할 수 있다.

디지털이 오프셋을 완전히 대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데릭도이(Derrick Doi) 부사장(퀵/프랜차이즈 인쇄부문,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그룹)은 디지털 인쇄가 결국에는 우세한 기술이 되겠지만, 디지털과 오프셋이 한 공간에 항상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최근의 NAPL 전략 전망(NAPL Strategic Perspective) 2010 보고서에 따르면, 오프셋이 2012년에 51%로 여전히 우세한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이 약 10~35%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술 발전은 디지털 기술로 인쇄되는 고급 세일즈 자료 및 개인화된 직접 마케팅의 적용을 통해, 디지털이 오프셋 인쇄의 품질을 따라갈 수 없다는 우

려를 제거하였다. 오래된 인쇄업체들은 오프셋으로 계속 운영하겠지만, 주문형 인쇄와 개인화된 통신이 점점 더 많아지므로 디지털 인쇄가 이 산업이 전환해야 할 기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케빈컨(Kevin Kern) 마케팅 수석 부사장(미국 코니카 미놀타 비즈니스 솔루션)은 오프셋 인쇄가 디지털로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오프셋의 장점들은 분명히 두 기술 모두의 도전을 받을 것이고 최종 사용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자사진의 성능 및 미디어 처리의 끊임없는 향상과 고속의 연속공급 잉크젯 프레스의 지속적인 개발로, 오프셋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압박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e-북 리더와 유비쿼터스 iPad같은 획기적인 제품과 결합된 크로스 미디어 광고와 판촉의 통합, 콘텐츠 전달, 및 인쇄 사용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전통적인 오프셋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고, 비록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오프셋 시장은 계속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포레스트레이튼(Forrest Leighton) 미국 캐논 제품 마케팅, ISG 생산 시스템 책임자는 디지털 프레스는 인쇄 제공업자의 프로필에 있는 귀중한 도구이고, 단기 및 가변 데이터 인쇄 등에 안성맞춤이고, 오프셋을 훌륭하게 보완해 준다. 디지털 장치가 더욱 견고해지고 고객이 출력물의 더 큰 차별화를 요구함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이 오프셋에서 다른 기술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www.quickprinting.com (미국)

번역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